

in who?

2024년 12월 Vol. 8

'익숙함과 새로움을 만날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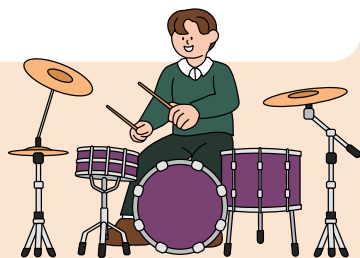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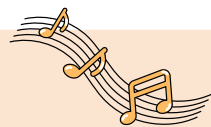


인후생활문화센터

Since 2003

인후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 실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동호회활동, 각 기관별 연계사업, 체험프로그램, 인문학강좌,
11,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한 작은도서관 등을 상시 운영하면서
다채롭고 풍성한 생활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Contents

생활문화 플러스	05	내 삶을 채우는 아트테라피
	08	모자이크 Inhoo
	09	사이버 MZ되기
	10	우리동네 웹툰작가
	11	문화거리 60
	12	뚝뚝뚝 자진모리 춤바람
	14	꽃으로 가꾸는 마음정원
Makers 인후	17	여름의 미학 / 토피어리만들기 / 라탄공예
	18	봉투에 마음을 담아 / 손바느질로 만들어보는 MY마스코트
프로그램	19	2024 교육 프로그램
	22	2024 동호회 프로그램
생활문화 네트워크	25	지역어린이집네트워크「꿈꾸는 창작 놀이터」
	28	전주시평생학습관네트워크 「전주시인문주간」제과명장에게 듣는 빵 이야기 「평생학습한마당」행운을 부르는 고운우리말
	29	전주시립극단「낭독극-청개구리 또 또」/ 인후1동 자생단체「마을축제-안골콘서트」
	30	전주생문동「찾아가는문화나눔」
	31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모서리도서관」
	3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_안골노인복지관, 효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계단 갤러리	32	오영석 / 이석재
	33	문수자 / 수채화교실 A반 / 수채화교실 B반
	34	보태니컬 아트 / 오영석 / 캘리바라기동호회
	35	쏘잉매직 / 꽃 길 캘리그래피 / 이명주
책마을	36	작은도서관
	37	작가의서재-황인찬 북 콘서트
	38	독서동아리 활동소개
	40	사업성과공유회 꽃이 되는 순간 전시회, 동호회 정기공연
	42	인후사용설명서



생활문화 플러스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들과 함께 삶을 재해석하고,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했다. 올해는 ‘치유’를 주제로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내면들여다보고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펜데믹 이후 문화향유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와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지역민들이 다양한 예술과 인문학적 체험을 통해 삶의 치유와 깊이를 채워가길 바란다.



2024 길 위의 인문학

내 삶을 채우는 아트테라피

#인문학교육 #선사시대 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그리기 활동을 통한 치유 #탐방 #전시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지는 삶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잘 알고 지내든 처음 보았던 간에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배우며 나도 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번 인문학 사업은 ‘익숙함과 새로움을 만날 기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미술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 그림그리기를 통한 치유,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다시 나를 바라 봄’을 주제로 참여자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삶의 치유와, 깊이를 채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였다. 20여명의 참여자들은 고대미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작품들과 교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냈다.



인문학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주민에게 인문학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 삶을 채우는 아트테라피’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과도한 압박 등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을 서양미술사 교육과 활동을 통해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의 탄생과정과 그 작품이 품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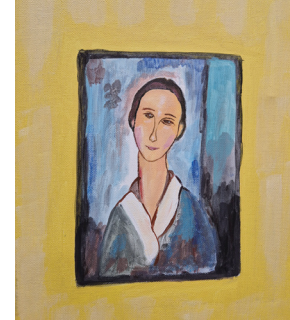


With or Without

영원함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일 것이다.

“모네의 정원은 멋진데 내 정원은 분명 같은 장소인데도 느낌이 너무 다르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연희의 지난 60여 년>. 사춘기, 여고 시절, 남편과의 결혼, 아들 둘을 둔 엄마, 며느리와 손주가 합류한 대가족, 빈 등지에 남은 노부부”
선사시대의 영원을 위한 미술부터 입체파의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참

여자 본인에게 집중하면서 이유도 없이 생겨난 나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 그리고 형체가 명확해진 감정을 내 방식으로 소화하는 과정 속에 눈에 보이는 작업물도 쏟아졌다. 고요하지만 확실한 개인적 순간이 담긴 작품은 회차를 마칠 때마다 센터에 마련된 전시 전용공간에서 작품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이용객들이 지나다니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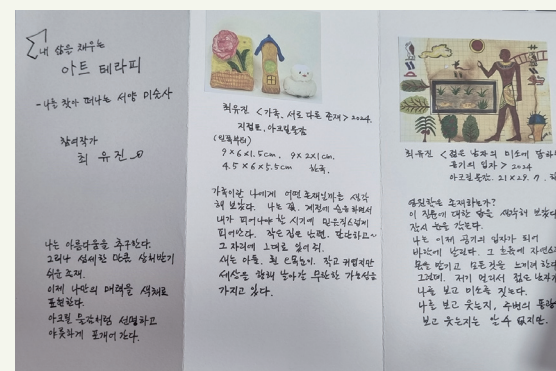
자화상을 통해 10년 전의 나를 만났다

“내가 너무 늙은 것 같아서 어디 좋은데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싫었는데 오랜만에 유심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와 내 눈이 마주치면서 ‘잘 살아왔어, 지금처럼 앞으로도 살면 돼’라고 위로의 말도 건넸다가,
‘좀 더 열심히 살지 그랬어. 책도 많이 읽고, 돈도 많이 벌고’라며 원망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나이 들었니?’ 하며 피식 웃다가,,,
끝내는 설명하기 힘든 내 복잡한 마음과 마주했다.



+ 수업이 마무리 되었네요. 어땠나요?



‘생존을 위한 미술’, ‘왕권을 위한 미술’, ‘종교적 교리 전달을 위한 미술’,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미술’, ‘미술을 위한 미술’ 등등....

세상에 수없이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미술 교과서에만 봤던 예술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해당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즐거움이 었다.

불안정한 인간의 심리문제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일상에 지친 나에게 모처럼 헛헛했던 마음도 단단히 채우고, 지식도 한 단계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술에는 인간을 치유하고, 희망을 품게 하며, 신념과 태도를 바꾸거나 회복하고, 자기 성찰을 촉진하며, 어쩌면 본인도 잊었을지 모를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힘이 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 미술 또한 시대가 원하는 다른 모습을 한다.

2024 대한민국문화도시 예비사업 _ 문화향유기회확대‘만사OK프로젝트’

모자이크 Inhoo

#인공지능 #AI #챗GPT #사이버예술 #예술창작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전시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2024년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만사 OK’는 시민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지향적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이다. 나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이라! 가장먼저 떠오른 것은 AI(인공지능)와 예술의 만남이었다.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느껴지는 문화예술에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문화예술장르에 AI창작물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그로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인간적 호기심을 직접 구현해 보며 인공지능이 표현할 수 없는 주변의 모습과 인간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다.



AI(인공지능) 너 도대체 뭐니?

인공지능활용법, 어플을 활용한 실행방법 배우기. 명령어입력이 한글로 하면 안 된다고? 다시 영어로 변환해서 붙이기 등등. 인공지능이 나의 명령을 기다리며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듯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내가 너를 이해하고 알아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는 곧 현대인들의 능력의 차이로 평가 받아가고 있다. 학생들의 과



제, 보고서, 발표자료, 자기소개서 심지어는 시를 쓰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시대의 거스름을 피할 순 없다.

사이버 MZ되기

출근하는 길, 동네마트 가는 골목, 나만의 동네 산책 길 등 일상의 풍경을 Chat GPT에서 인식할 수 있는 문구로 변환한 후, 원하는 스타일로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어낸 AI 그림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명령어에 따라 점점 정교해지는 작업물의 완성도를 보며 ‘작가가 필요할까? 작가가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의문이 자꾸만 생겨났다.



midjourney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거야.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줘.장르는 유화로 할거야. 계절은 여름이고 한밤중 도심 한가운데 인공 물길이 나있고 양 옆으로는 플리마켓이 열렸어. 야경이 꼭 별처럼 보여. 물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 보여. 양옆 끝 쪽엔 상가들이 늘어서 있어.

An oil painting set in the middle of a city at midnight during the summer.

A man-made waterway runs through the city center, with a vibrant flea market on both sides. The night scene glows like starlight. Children are joyfully playing in the water, and at the far ends of both sides, rows of shops line the street

midjourney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거야.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림의 장르는 유화로 할거야. ‘Claude Monet’스타일로 해줘. 아주 어두운 밤에 산과 호수가 있어. 가운데엔 원형의 빛나는 교차로가 있고 빛나는 길이 3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멋진 야경을 만들어. 시선은 50도 쯤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어.

An oil painting in the style of Claude Monet. A very dark night scene featuring a serene mountain and lake. In the center, a circular glowing intersection with three radiant paths leading in different directions, creating a captivating night view. The perspective is about 50 degrees, looking over the lake.



음악도 AI로 만들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감상해보죠 ♪

〈봄날의 단편〉 - 수업 중 제작한 AI 작업물

https://soundcloud.com/uveyhiaverg/echoes-of-yesterday?si=e2b92df86f704000b5d952d5a97ebe51&utm_source=clipboard&utm_medium=text&utm_campaign=social_sharing

우리동네 웹툰작가

이전엔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란 ‘윙크’나 ‘점프’에 나오던 10장 남짓 연재 물이나, 만화방에서 늘 기다리던 신작이었다. 요즘은 네이버에서 주마다 연재되는 웹툰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그림이 맞나 싶은 4~6컷 분량의 일상툰이 현대인들에게 더 선호되고 있다.

또한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문자 없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기분 등을 표현하는 문화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일상도 엿보면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던 순간이었다.



"종이에 그리려면 지웠다, 다시 그렸다 하면서 너덜너덜 해졌을 텐데 패드로 그리니까 무엇보다 수정이 편해서 좋네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움작이게 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보여줬더니 남편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냐고 웃던데요?"



"좀 익숙해지면 일상툰으로 한 번 해봐?"



"다음엔 이걸로 AI 스티มป์ 이런 것 만들어보고 싶네."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갈수록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 기대도 되었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기술의 발전에 ‘그럼 인간은 이제 쓸모없이 지는 건가?’ 우려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40개의 캔버스에 참여자와 센터이용객, 동호회원, 수강생등이 캘리그래피, 펜화, 수채화, 보태니컬 등 다양한 기법으로 인후동의 상징 ‘시사재’를 협동화로 만들어 냈다. 40명의 생각과 계절이 담긴 특별한 작품이 되었다.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한들 다 담기는 어렵지 않을까?

2024 특성화사업

문화거리60

#골목길 #수공예 #전시 #체험 #공연 #재능나눔 #N차점빵 #기부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문화거리60’은 시민들의 거주지 가까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생활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아마추어예술가들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인후생활문화센터 대표 지속사업이다. 왜 60이냐고? 광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동네는 마음 놓고 전을 펼쳐놓을 공간이 없다. 60미터의 짧은 거리 일지라도 생활문화의 전을 펼쳐 시민들과 만나고, 공감하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 뜻밖의 예술을 마주한 시민들은 센터를 통해 취향과 취미를 개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동아리를 조직하고, 아마추어예술가로 성장해 가고 있다. 우리센터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배워서 남 주자

안골사거리 인후동에서 가장 지역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네거리이다. 역시나 은행일 보러 나왔다, 슈퍼에 잠깐, 친구만 나고 들어가는 길이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르신, 하교중인 중고등학생들,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군의 지역민들이 뜻밖의 문화거리에 멈춰 섰다. 이게 뭐지? 호기심 가득, 왜 여기서?



"생활문화에서 배워서 이렇게 그랬다고요?
너무 수준 높은 거 같은데"

"이거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아부나 가도 되는 건가?"

"너 여기서 뭐해? 언제 이런 걸 다 배웠대.
왜 혼자만 이 좋은걸 하고 있어?"

"집에서 안 쓰는 거 동네사람들이랑 나누니까 너무 좋다."

※ N차 점빵에 물품을 기증해 주신 지역민들과 문화거리60 마켓을 운영해 주신 참여자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는 200,000원 이상 수익금을 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하였다.

2024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뚝뚝뚝 자진모리 춤바람

#한국무용 #퓨전창작 #뚝뚝뚝 #춤바람 #현대음악 #건강.치유.힐링 #영상촬영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100세 인생’이라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 SNS만 봐도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수불가결한 관심사항이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항목 중 하나는 ‘운동’이다. 일상체력과 신체적 건강증진 그리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춤은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뚝뚝뚝 자진모리 춤바람’은 운동과 문화예술 교육을 접목시킨 ‘퓨전창작무용’이다. 전통한 국무용과 현대음악을 결합하여 신중년세대와 40~50대들을 무용이라는 예술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고 서로의 취향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어떠한 것이든 기본을 튼튼히 다져야 나중에 탈이 안나는법!

한국무용의 기본자세를 포함한 ‘기본무’의 기초인 ‘인체’ 부터 시작해서 ‘발디딤새’ ‘호흡법’ 등 단계별로 진행했다. 무용을 배우며 많이들 놀란 포인트는 생각보다 하체의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었다.

무대에서는 한복치마에 가려져 주로 상체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치마 속에서 다리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영상촬영

‘숏폼’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무용영상을 촬영했다. 춤을 통해 스트레스는 완화를 하되, 이러한 도전과제(challenge)를 주어 목표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활력을 높이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카메라 앞이 낯 설게 느껴진 것도 잠시뿐!



"꼭 춤을 잘 취야할 것 같고 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깐 그런 생각들과 다르게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네요."

"춤 연습한다고 집에서 연습했더니 요즘 맨날 운동한 기분이에요 "

"저는 매주 수업시간만 기다려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제 유일한 취미시간이에요!"



뚝뚝뚝 자진모리 춤바람 시민들과 만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 3개월이란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꾸준한 단체연습과 개인연습들로 작품 발표회를 준비했다. ‘뚝뚝뚝 자진모리 춤바람 작품 발표회’를 통해서 전주 시민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나누고자 ‘전주향교 대성전’에서 야외공연을 펼쳤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한국퓨전무용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공유하고자 야외 영상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전주향교를 찾아온 외국인과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관람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셨다. 우린 누가 봐도 전문 예술인이 아니었기에

관람객들이 더 뜨겁게 호응해 주었고, 참여자들도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화려했던 작품 발표회를 마무리 했다.



작품 발표회

전문가이든 아마추어 예술인이든 예술작품에서 직접 활동 하는 것만이 문화예술인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술자세를 보는 것, 짧은 소감을 한마디 나누는 것 또한 문화예술에 참여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3개월간의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참여자분들은 후속모임 ‘춤바람’을 결성해 틈틈이 연습도하고 지역봉사공연도 하며 후속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지속해나가셨다.

2024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꽃으로 가꾸는 마음정원

#꽃꽂이 #리스 #건강.치유.힐링 #마음정원 #플라워클래스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누구나 취미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있다. 기획자는 '누가 문화생활에서 소외 되었을까?'를 고민하다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중 20~30대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꽃으로 가꾸는 마음정원'은 일상에 지친 청년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친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에 휴식을 주고 취미활동과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알리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힐링이 주제인 만큼 '꽃'을 소재로 정했고,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가 용이하도록 했다. 다양한 꽃꽂이 레슨, 꽃말, 때와 장소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하루일과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꽃바구니에서 가장 중요한건 낮낮이

한국무용의 기본자세를 포함한 '기본무'의 기초인 '인체' 부터 시작해서 '발디딤새' '호흡법' 등 단계별로 진행했다. 무용을 배우며 많이들 놀란 포인트는 생각보다 하체의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였다. 무대에서는 한복치마에 가려져 주로 상체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치마 속에서 다리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이런 클래스 듣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서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홍보 포스터 보자마자 예약 마감될까봐 얼른 신청 했어요"

"와 저렇게 크게 꽃은 것도 너무 감동적이네요! 저도 참고 해야겠네요"

"엄마도 꽃을 좋아하셔서 오늘 꽃바구니 엄마께 선물로 드리려고요!"



모네의 수련연못, 꽃 케이크, 크리스마스 리스

꽃다발에 약간의 특색을 주어 명화 꽃다발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저번 꽃바구니는 강렬한 붉은 계열의 디자인 이었다면 이번엔 힘을 뺀 듯 한 푸른 계열에 부드러운 리시안셔스, 디디스커스, 스타치스, 유칼립투스 등으로 구성했다.

꽃 바구니와 달리 꽃 다발은 '스파이럴(spiral)' 이라는

약간의 손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는 소용돌이선(Spiral)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한 꽃을 중심으로 감기는 듯하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디자인하는 방법이라고. 처음 경험해보는 기술로 손에 쥐가 날 것 같다고들 했지만 새로운걸 알고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재밌고 뿌듯함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색도 이쁘는데 꽃에서 나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맡고 싶어요"

"이 꽃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까요? 아님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볼까요?"

"꽃다발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이런 기술을 쓰느지는 처음 알게 되었네요"

꽃바구니는 선생님께서 본보기로 작은 샘플을 가져왔지만 꽃다발은 모네의 연못 그림 포스터를 제외하고 시작부터 온전히 혼자서 감각으로 시작하였다. 새로운 기술 + 창작의 조합으로 참여자들은 '나도 몰랐

던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해주는 것 같다'며 농담 같은 말들이 오고갔다. 같은 그림을 주제로 같은 꽃, 같은 준비물을 썼음에도 크기와 모양, 디자인이 모두 다른 개성 있는 작품들이 완성되었다.

Makers 인후



주민들이 센터를 통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 인후는 개개인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같은 취향을 가진 시민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손재주 좋은 지역민과, 경력단절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재능을 나누고 문화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 한다. 올해는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벤트를 업로드하여 네이버 폼과 오프라인을 통해 2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일부를 채택하여 메이커스 활동을 진행하였다. 취미와 취향을 공유하고 싶은 모든 분들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제안해주면 된다.



여름의 미학

만물이 성장하는 봄!

흐드러진 벚꽃이 코끝을 간지럽힌다.

새 봄을 맞는 나의 마음가짐과 느낌에 대해 한 올 한 올 매듭을 엮듯 삶을 엮어보고자 한다. 마크라메의 다양한 매듭기술을 배워 화분을 걸 수 있는 행잉 소품을 만들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화사한 봄 분위기를 내주고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감싸 안으니 '너무 행복할 수밖에'



토피어리 만들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산림녹화를 위해 나무를 심도록 정한 식목일 4월5일이 1910년 순종이 친히 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도시에서 살면서 나무를 어디에 심지? 화분에....

토피어리와 산호수를 심어 반려 식물로 정성껏 길러보자. 초록열매가 동글동글 생겨나고 빨갛게 익어 가면, 내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탄공예

라탄공예란! 라탄(rattan)이라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라는 열대식물을 얇게 재단해서 실용품을 만드는 수공예다. 기계로는 짤 수 없고 오직 사람의 손 끝에서만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다. 라탄을 활용하여 스탠드와 필통을 만들어 보았다. 참여자에 따라 작품모양이 제각각 이어서 만드는 재미를 더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물에 한번 적셔서 부드럽게 해주어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

여기의 기본만 잘 익히면 어떤 소품도 푹푹딱딱!! 응용이 가능하다.



봉투에 마음을 담아

다가오는 추석. 부모님께,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문구를 담은 용돈봉투를 준비해보자. 아름다운 손 글씨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문구를 정해 봉투를 작성하고 스티커를 활용하거나 직접그림을 그려 완성하였다. 시간을 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서체와 표본을 일주일간 상시 비치하여 센터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추진하였다. 내가 꾸민 봉투도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기증도 하면서 작은 나눔을 실천 하였다.



손바느질로 만들어보는 MY마스코트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다. 뭔가 따뜻함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계절, 한땀 한땀 손바느질로 나만의 마스코트 인형 만들기를 진행했다. 손바느질이야말로 창의성을 넓히고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느끼게 천천히 채워나간다. 수작업이 주는 따뜻함과 감성으로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참여자 소감

2024 교육 프로그램



내 몸 바로알기 뼈 교정

건강에 대한 관심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들은 노화에 의한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한다면,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은 바르지 못한 자세, 스트레스, 출산 등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 반신반의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런 것도 한다고? 평소 자주 다니는 센터여서 믿음을 갖고 신청을 했다. 진단을 해주는 전문가와 치료를 해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내 상태를 잘 파악했고 경락 같은 맛사지도 시원하게 잘 받았다. 시민들이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마음도 건강도 치유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박한 정리 수납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정리정돈이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하고 항상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던 것 같다. 첫 시간! 정리정돈의 최고기술은 '버리는 것'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에 참여자들 모두 '맞아'를 외쳤다. 집에 돌아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무조건 하루에 3가지씩 들고 나왔다. 배달음식점에서 오는 나무젓가락 하나라도 말이다. 서랍하나, 썬크대 선반 하나, 집안을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니 물건뿐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리정돈을 한다는 것은, 주변이 깨끗해진다는 것,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는 것,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는 것, 성취감(자격증)을 얻는다는 것^^



인지발레-스퀘어스텝

오! 발레. 요즘 스테이지파이터 프로그램에 푹 빠져 살고 있었다. 한국, 현대, 발레 세장르 전문 남자무용수들의 춤 경연인데, 너무 매력적이다. 때마침 발레수업을 한다고 하니 바로 신청을 했다. 중년이후 갱년기로 오는 근력손실, 체력약화, 인지능력저하등등 모두가 나를 위한 언어들이다.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예쁜 선생님과 우아한 춤, 발레를 통해 건강한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





수채화교실

학창시절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다. 부모님의 '돈도 안 되는 그림을 뭐하러 배우려하느냐'는 한마디에 내 꿈을 잊고 지냈지 50년이 넘었다. 인후 생활문화센터는 내가 일주일에 두 번 꼬박꼬박 요가를 하러 오는 곳이다. 여느때처럼 계단을 올라오다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고, '나도 이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문의를 했고, 돈 많고 고상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왜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을까? 아이들 키우고 손자까지 돌봐주고 나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거였겠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밌다. 행복하다. 수요일이 기다려진다. 몇 시간을 붙들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펜화

어반스케etch스를 하고 싶어 펜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나 멋진 풍경을 그려내고, 내 느낌을 글로 쓰는 작업이 너무 낭만적이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정신없이 퇴근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목요일 저녁 2시간은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잊고, 온전히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내 시간이다. 집에 돌아가면 또 남편과 아버지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엔 여성분들이 많고 연령대도 제 각각이어서 낯설고 힘들었다. 한 달 쯤 지나니 남녀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나이도 상관없이 없고 그림으로 서로 공감하며 세대와 성별이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목요기타

10월의 마지막 밤. 우연히도 오늘 저녁 우리 기타반 수업이 있는 날이다. 통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의 잊혀진 계절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 같은 게 있다. 수강생들과 케익과 다과를 좀 준비해서 선생님과 폐창을 함께 부르면서 시월의 마지막 수업을 했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 곳 인후생활문화센터이다.



드럼

한숨이 절로 나온다. 손 따로 발 따로 스트레스 풀로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그냥 할 것 같은데, 왜 맘대로 안 되는 걸까? 지금포기하면 난 영영 못할 수 있어. 끝까지 해 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평행선을 신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 1_ 토요일기타
- 2_ 영어회화
- 3_ 붓펜캘리그래피
- 4_ 천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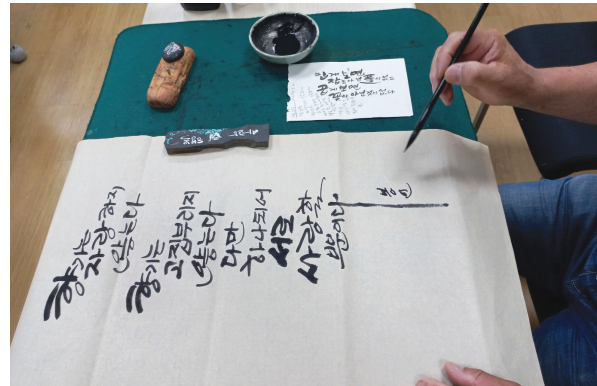
참여자
소감

2024 동호회 프로그램



쏘잉매직

나는 프랑스 자수 동호회 '쏘잉매직' 회원이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동호회 활동을 한다. 수다를 떨며 각자 하고 싶은 자수를 놓다 보면 금 새 헤어질 시간이 된다. 어떨 땐 수를 놓는 것보다 얘기에 집중하기도 한다. 회원들끼리 친해져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소풍을 가기도 한다. 우리는 매주 개별활동을 하거나 함께 하기 좋은 작품활동을 계획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집에서 코트에 단추 정도나 달았던 내가 회원들의 도움으로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간다. 남편과 아이들은 내 작품 자랑에 시큰둥 하지만 나는 뿌듯한 마음이 가득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인후생활문화센터 계단갤러리에 걸려있던 작품을 보여주니 크게 놀라워한다. 가까운 곳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후생활문화센터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 없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신축아파트로 이사 갈 자금도 부족하지만 말이다.



캘리바라기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이것저것 취미생활 할 것을 찾다가 친구소개로 처음 인후에 왔다. 먹 향기 가득, 어릴 적 오빠가 서당을 다니며 천자문 연습을 할 때 내가 먹을 갈아주곤 했던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처음 보는 나를 환대해주는 회원들이 너무 고마웠다. 온화한 표정과 넉넉한 마음씀씀이가 조금은 당황스러웠다고나 할까? 아직 직장생활의 때를 못 벗은 내가 이런 친절함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언제 붓을 들어보았지? 초등학교 때인가... 손이 달달 떨렸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게 뭐라고!

선생님께서 '연습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이 많은 종이에 다 연습할 거예요' 라고 하자 헛 웃음이 나오며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퇴직하면 뭐든 신나서 잘 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늘 상 만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내가먼저 손은 내밀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난 잘하고 있는 거다. 30분 넘게 운전하고 붓글씨를 쓰러 오긴 하지만 인생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다. 붙들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전주만돌린앙상블

제48회 규슈만돌린페스티벌
〈일본, 후쿠오카〉초청 공연



웰빙요가

건강을 위해 요가를 즐긴다. 뭐 딱히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우리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많고 10년이 넘게 서로 친교를 다쳐 오신 분들이라 서로 배려심이 깊고 가족같이 잘 대해 준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배우는 것 같다.



인후보태니컬아트

언제부턴가 목요일 오전은 약속을 잡아서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는 그런 날이다. 누군가 '언제 만나자~' 라고 하면 난 무조건 '목요일은 안 돼' 라고 선을 긋는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오로지 그 시간은 스케치하고 색칠하는데 집중하고 싶은 시간이 되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수십 수백번 반복을 통해 색이 입혀지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다. 차 한잔을 시작으로 회원들과 수다도 떨고 얼마나 그려왔는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칭찬하고 용기도 주고, 너무 조용하지도 너무 수다스럽지도 않게 그림을 그려나간다. 어떤 색연필을 사용하여 색을 내는지, 손의 힘은 어떻게 주는지, 작품은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이야기 나누다 보면 벌써 집에 갈 시간이다. 나는 이시간이 너무 좋다.

- 1_ 천둥소리
- 2_ 먹으로그리는세상
- 3_ 바람소리



생활문화 네트워크



인후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자생단체, 유관기관, 소규모 공동체들과 꾸준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어른이 만나고 기관과 기관이 소통하며, 소규모 공동체와 동호회가 어울릴 수 있도록 연결하여 마을 축제, 마을 가꾸기, 문화봉사, 문화거리 등을 추진하며 주민들 간 신뢰를 쌓고소통과 화합을 장을 펼쳐 가고 있다.



지역어린이집 네트워크 「꿈꾸는 창작 놀이터」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작년부터 지역 어린이들을 센터로 초대하여 창작 놀이를 진행하였다. 책을 매개로 한 놀이 활동은 스마트폰을 먼저 알아버린 영, 유아들이 책의 재미를 알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센터는 사회지원활동 어르신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영유아가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였다. 알곡, 신세계, 지혜의숲 어린이집 유아들과 함께한 즐거운 책놀이,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과 선생님을 불편해 하였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책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름언니~’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으로
책 읽어주는 언니를 힘차게 부른다**

알곡어린이집 놀이터

왕과 대포

#선정도서_
고릴라 왕과 대포 / 나미치사부로
#왕관만들어쓰기
#대포만들어 컵 쓰러뜨리기

스파이더 거미

#선정도서_딩동거미 / 신성희
#텀블러파우치 꾸미기
#거미줄에걸린 숫자공 찾기, 통과하기

불량감자탈출기

#선정도서_감자아이 / 조영지
#라켓공놀이 #긱속말전달 릴레이
#탁구공 달걀판 옮기기

"대포에 동생 하람이를 넣어서
크게 만들고 싶어요,
대포놀이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날아가는새를 거미줄을 쏘서 잡을래요,
악당을 물리칠 거예요"



"나의 안 좋은 점은 야채를
싫어해요, 현수가 귤속말 할 때
귀가 너무 간진간진 했어요"



신세계어린이집 놀이터

요술부채

#선정도서_ 빨간 부채 파란 부채 / 홍영우
#알록달록 부채 꾸미기
#컵게임, 풍선멀리보내기

오색빛깔 물고기

#선정도서_ 무지개 물고기 / 마르쿠스 피스터
#선개쳐물고기 도어벨
#무지개물고기 비늘

호랑이도 무섭지 않아

#선정도서_ 줄줄이 펜 호랑이 / 권문희
#독서대 #끝말잇기, 줄줄이 펜 호랑이

"나에게 요술부채가 있다면,
키가 커지게 하고 싶어요."



"지개 물고기는 너무 착해요. 지개 물고기는
비늘이 없어져서 아플 것 같아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발로
'뽕뽕' 차버릴 거예요."



"하늘나라로
'뽕' 날아가서
선녀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호랑이
가면을 쓰고
같이 놀래요."



"부채를 타고
놀래요"



"소꿉친 토끼반
은수에게 줄래요."



"우리 아빠는
호랑이
이기에."



지혜의숲어린이집 놀이터

경칩에 깨어난 개구리

#선정도서_ 꿈에서 맛 본 뽕파리 / 백희나
#점프하는 개구리 #파리잡기

하나, 둘, 셋 모여라

#선정도서_ 아기 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 / 채인선
#모스액자 #숫자에 맞춰 짝맞기

내 마음을 표현해 보

#선정도서_ 알사탕 / 백희나
#한복입은 목각인형
#캡슐통, 구슬치기

"뽕파리는
맛 없을 것 같아요.
뽕냄새 나서"



"우리집에는 내 동생 한명이에요.
동생이 많으면 옷 입히기 힘들 것 같아요."



"알사탕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빨 썩는다고
못 먹게 했어요."



"봄에 꽃피어요."



"우리 할머니
집에 오리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좋겠어요."



"나 울창이 왔는데~~." 어땠니?
"귀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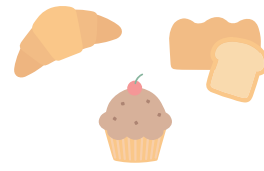


"짝맞기 놀이 엄청
재미있어요."



"구슬치기할 때
내가 구슬을
맞혔어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제과명장에게 듣는 빵 이야기

요즘 핫 플레이스는 바로 베이커리 맛 집! 디저트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지역에서 열리는 빵 축제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리는걸 보면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전주에는 프렌차이즈 빵집을 뛰어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초코파이가 있다. 풍년제과 제과제빵기능장과 함께 밀의역사부터 시작하여 제과와 제빵의 차이, 빵의 종류, 빵에 얽힌 이야기, 나라별, 기념일별로 먹는 빵과 먹는 방법 등을 배워보았다.

마무리는 역시 시식

60대 남성 참여자에게 여쭙어보았다. 진정 빵을 좋아하시는지... 대답은 NO! 그럼 왜죠?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해서라고. 직장 다니느라 가족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젠 퇴직도 했으니 맛있게 빵을 구워 아내와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그게 로망이라고.



평생학습한마당 '행운을 부르는 고운 우리말'

평생학습 한마당은 전주시민의 한 해 동안의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기관·단체·강사·학습자 등 평생학습 자원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117개의 평생학습 인문체험 부스와 40여팀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는 '행운을 부르는 고운 우리말'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래피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참여자들은 붓과 펜으로 행운을 얻고 싶은 기대, 가족, 연인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전주시립극단 청개구리 또 또

전주시립극단과 함께하는 낭독공연은 몇 년째 지속하고 있다. 유아 150여명을 초청하여 전문배우들에게서 듣는 낭독극은 지역의 부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좋은 기회다. '청개구리 또또', '책과 콩나무', '해님 달님' 총 3편의 낭독공연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까지도 웃고, 울고, 놀라기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도 배웠다.



지역자생단체 네트워크 마을축제_안골 콘서트



안골콘서트는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지속 해온 우리 지역 최장 대표 축제다. 센터, 관, 자생단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참여 및 향유기회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소상공인들과의 연계 홍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냄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북춤, 통기타등 문화예술공연, 태평소, 지역가수등 지역예술인 재능나눔공연,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물품기부를 통한 경품추첨등 다채로운 축제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하여 화합과 소통을 장을 마련했다.

전주생문동 찾아가는 문화나눔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센터가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나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들 발길을 찾아 문화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전주엔 100여개 가까운 생활문화동호회가 있지만 올해는 쏘잉매직, 꽃 길 캘리그라피, 천동소리 이렇게 3개의 동호회 외에도 ‘신박한 정리수납’, ‘천아트’, ‘사랑의 하모니’, ‘펜화’ 등 여러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인후동 안골네거리



시민들의 산책공원 아중호수



전주주간보호센터



6월 인후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민들이 오가는 곳 안골네거리에서 ‘캘리그라피와 여름부채’, ‘곰돌이 키팅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의 재료가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10월 아중호수에서는 공연과 전시까지 준비했는데 예보에도 없는 비로 인해 이 곳을 방문하시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공연 내내 우산을 쓰고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주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좋아하는 노래, 색소폰연주, 한국무용, 천아트 체험등 다채로운 문화나눔을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모서리도서관

안골콘서트스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지속 해온 우리 지역 최장 대표 축제다. 센터, 관, 자생단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참여 및 향유기회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소상공인들과의 연계 홍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므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북춤, 통기타등 문화예술공연, 태평소, 지역가수등 지역예술인 재능나눔공연,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물품기부를 통한 경품추첨등 다채로운 축제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하여 화합과 소통을 장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골노인복지관, 효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사회참여기회를 제공을 위한 사업에 세분의 어르신들이 센터에 새 가족으로 오셨다. 환경정리와 책 소독, 대출, 싱그러운 화분관리 등 센터의 부족한 일손을 빈틈없이 채워주셨다.

계단 갤러리

센터프로그램 및 동호인, 아마추어 예술가, 전문 예술인 등 누구나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자 계단갤러리가 연중 운영되고 있다.

작품 전시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채화, 캘리그래피, 펜화, 보태니컬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미활동을 통한 재능개발로 예술적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U.S.K 전시회「오영석」 2024.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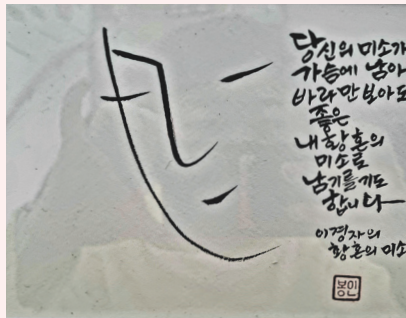
풍경을 그리는 어반스케etches 활동으로 공원, 가게, 인물 등 지역의 소소한 일상을 섬세한 솜씨로 그려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석재」 2024. 2월

서각, 우드버닝 등 아마추어 작가가 일상을 즐기는 소소한 취미활동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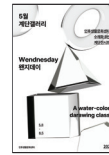
내 붉은 꽃 심「문수자」 2024. 3월

때로는 그림한 점, 글귀 한 구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꽃길동호회원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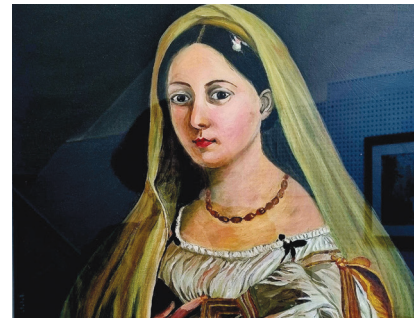
앤지데이「수채화교실 A반」 2024. 4월 | 단체전

길게는 5~6년, 짧게는 3개월 정도의 수련과정을 걸쳐 조금씩 조금씩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고 싶었다.



앤지데이「수채화교실 B반」 2024. 5월 | 단체전

길게는 5~6년, 짧게는 3개월 정도의 수련과정을 걸쳐 조금씩 조금씩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고 싶었다.





꽃 그림과 함께 피어나다「인후보태니컬아트동호회」 2024. 6월 | 단체전

식물, 꽃등 소소한 인내와 한계에 도달해야 완성이 되는 세밀화



펜으로 이어진 사람들「오영석」 2024. 7월 | 특별전

펜화를 좋아하고 10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품을 그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꽃바람술「캘리바라기동호회」 2024. 7월 | 특별전

무더위를 예술로 이겨보자는 초보 작가들의 지역민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선물한다.



형형색색 수 놓다「쏘잉매직」 2024. 8~9월 | 단체전

매주 금요일 공예 사랑방 인후에서 씨실과 날실로 만들어 낸 형형색색 실들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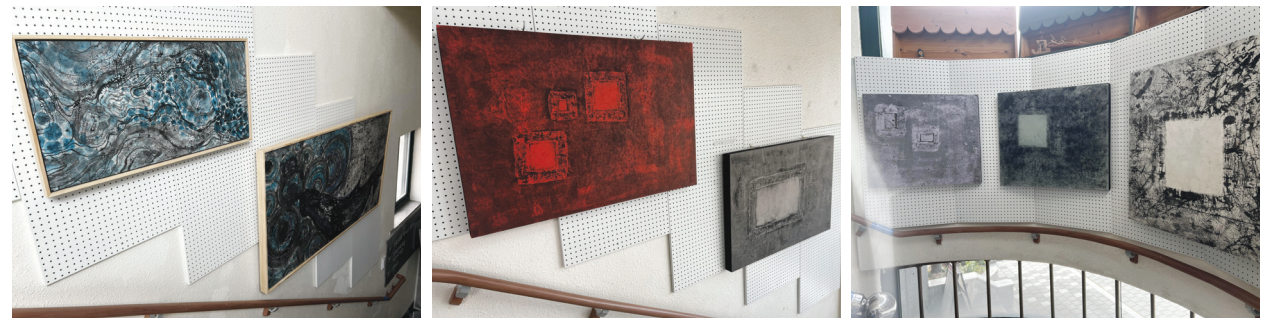
꿈을 그리고 쓰는 사람은 꿈을 닮아간다「꽃 길 캘리그래피」 2024. 10월 | 단체전

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게 진정한 생활문화작가의 길



마음의 창「이명주」작가 2024. 11~12월 | 개인전

염색기법에 한지와 먹의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특별한 기법으로 일상공간에서 느끼는 전문예술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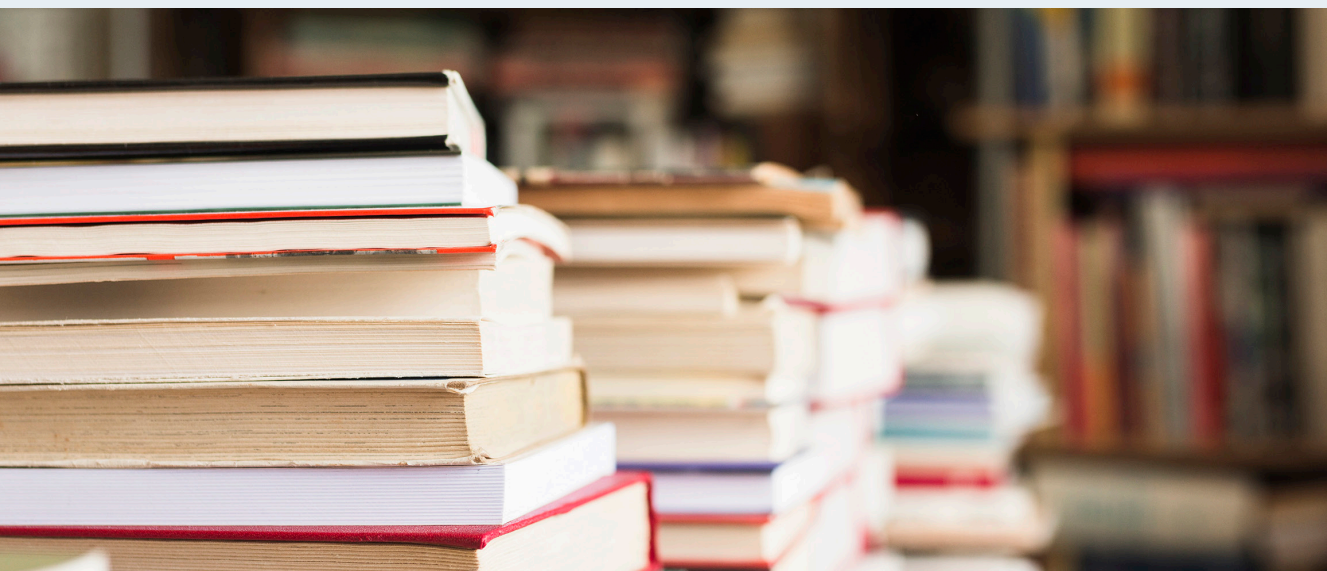
책 마을

책으로 소통하는
마음의 안식처 작은도서관



시민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도서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슬리퍼만 신고 나와도 양질의 책과 동네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공간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전주시립도서관 대출증만 있다면 한사람당 10권의 책을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고 시스템 통합으로 시립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검색과 상호대차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이 휴무인 시립도서관의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 도서관에서는 월요일에도 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모임,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신간도서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20여종의 우수 월간 잡지를 상시 비치하여 새로운 문화 콘테츠와 급변하는 사회적 메시지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과 안식을 가득 채우길 바란다.



작가의 서재 '황인찬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구관조 씻기기」, 「내가 예쁘다고?」, 「백살이 되면」 등의 시집과 그림책을 집필한 황인찬 작가를 초대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작가를 모시게 되어 뜨거운 관심과 열림속에 북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여백의 미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스킬을 기르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전주시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속 작은 시작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의 서재」



참여자 소감

소장도서에 친필사인을 받을 때 학창시절로 돌아간 여고생처럼 설레었어요. 이번 북 콘서트로 작가들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여종의 우수 잡지를 통한 문화콘텐츠 향유



독서동아리 활동

북마스터클럽(BMC)

신중년들의 독서모임이다.

회원들을 보면서 사서인 나는 '연륜이 곧 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독서를 통해 삶을 가꾸고 계신다. BMC클럽에서는 한 해 동안 어떤 책들과 함께 했을까?



〈BMC가 함께한 책들〉

- ①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 ② 참 괜찮은 태도 ③ 모멸감
- ④ 행복의 품격 ⑤ 힐빌리의 노래
- ⑥ 퓨처 셀프 ⑦ 우리가 작별을 할 때마다
- ⑧ 물욕의 세계 ⑨ 다산의 마지막 습관
- ⑩ 완벽에 관하여, 외 다수

그림책여행



아이들과 나의 발길이 향하는 책 방앗간 집 근처에 공립작은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접근성이 좋아 일과 중간에 언제라도 들러 책을 읽을 수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집부터 소설, 에세이, 역사, 초등,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학습만화, 그림책, 어린이잡지까지 아주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다. 처음엔 사서선생님이나 이용자들이 인사를 건네면 아이들이 쑥스러워하며 내 뒤에 숨었는데, 자주 방문하다보니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가서 아는 책을 하며 안기까지 한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따뜻한 온기와 정이 넘치는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돌봄이나 방과후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와 가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좋다.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 예절, 이용 방법을 습득하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작은도서관에 없는 도서들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신간도서들도 분기별로 혹은 수시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



면 원하는 책을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도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자주 다니다보니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지역축제, 전시 등 문화생활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인후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라, 사랑방 같은 따뜻함과 정겨움, 인후동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곳이다.

"2025년에는 인후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어서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



〈필로소피아가 함께한 책들〉

- ①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 ②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
- ③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④ 사람 장소 환대,
- ⑤ 무지한스승 ⑥아홉결례의 구도로 남은 사내
- ⑦ 설당을 태우다 ⑧ 맡겨진 소녀
- ⑨ 이처럼사소한 것들 ⑩ 더 디너, 외 다수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독서모임 필로소피아는 바쁜 시간을 틈타 꾸준한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한다.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담쟁이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진행하면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2024 필로소피아가 함께 읽은 책들을 소개해 본다.

낭독의 기쁨



어른이 되어 소리 내어 책을 읽는 일은 우리에게 주는 색다른 경험이고 기쁨이다. 우리는 흔히 책을 소리 내어 읽기보다는 눈으로 읽는 독서를 하고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긴장도 되지만 내 목소리로 책을 읽는 즐거움도 있다. 책을 읽다보면 재미있는 내용에서 절로 웃음이 나오고 심각한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 지는 것이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니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시작하여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의 <돈키호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니나>를 읽었고, 현재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을 읽고 있다. 요약본이 아닌 원작을 번역한 책이라서 두껍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책들이 많다. 처음으로 읽기 시작한 돈키호테는 16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원본 번역서였고 1년에 걸쳐 읽었다. 내가 아는 돈키호테와 내가 읽은 돈키호테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읽은 만큼 알게 되는 것은 읽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책 선정은



우리가 한번쯤 읽고 싶었으나 기회가 닿지 않아 읽기 어려웠던 책 위주로 정하고 있다.

모임의 회원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여러 연령층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4년째 모임을 잘 유지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 가벼운 마음으로 무거운 책을 들고 와 책도 읽으며 자신의 소소한 일상도 풀어내는 즐거운 모임을 하고있다. 모든 책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삶은 단순하기도 복잡하기도 하기에 우리는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려고 한다. 낭독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세요.

사업성과공유회

전시회

2024인후생활문화센터 ART 성과공유 전시회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인후생활문화센터 미술 분야 프로그램, 동호회 등 연합전시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참여팀, 참여자, 그 외 수강생, 동호회원, 지인, 시민 등 다수와의 활발한 교류로 생활문화를 통해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타인들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 아마추어예술가로서의 자기평가와 성장 동력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청목갤러리 2024.11.5~11.10

ART 성과공유 전시회

「삶이 꽃이 되는 순간」 함께 해주신 분들

#참여팀 9팀 #참여회원 65명 #전시기획회의 및 작품배치와 홍보까지

동호회원 프로그램수강생, 강사님들이 전시시작 단계부터 설치, 운영, 철거까지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나눔

인후생활문화센터 동호회들도 자생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능기부 공연을 지역사회 곳곳에서 펼치며 문화 나눔을 실천해나가는 중이다



연주회

전주만돌린양상블 동호회 「제9회 정기연주회」

우진문화공간 2024.11.15



연주회

버들강아지 「연말연주회」

푸르니에 2024.12.4

인후생활문화센터 & 작은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안내
전주시민 누구나 상시이용 가능
평 일 - 09:00~18:00
토요일 - 10:00~17:00 *도서대출 15:00까지
휴 무 - 일요일, 법정, 임시공휴일, 국경일, 명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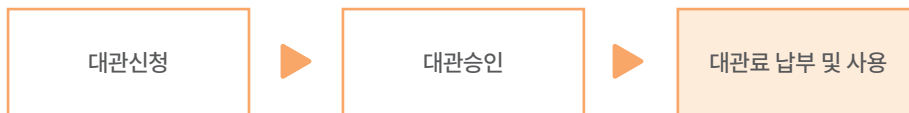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참여**



**공간대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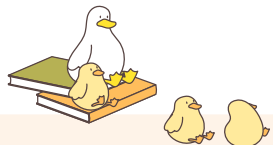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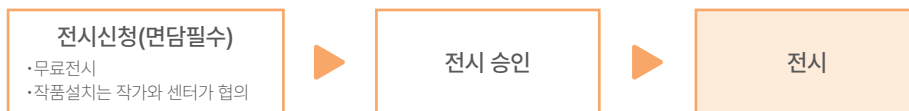


대관신청시
참고하세요

- 대관가능일정을 센터와 사전협의 후 대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종교적, 상업적, 영리목적 활동은 대관불가
- 이용료 : 유료

구분	기준	금액(원)	사용기준
회의 행사 교육 연습	1회	20,000	•기본이용시간 : 4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가산

**계단갤러리
전시**



문화창작실(110m²)

- 수용인원 40명
- 요가, 드림, 댄스, 통기타, 수채화 등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설치



정보사랑방(44m²)

- 수용인원 15명
- 학습, 교육, 소규모동호회활동
- 철판, 이동식 빔프로젝트운영



작은도서관(93m²)

- 수용인원 30명
- 11,000여권의도서비치
- 시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공간



안내데스크&복도&화장실(30m²)

- 수용인원 25명
- 이용객안내 및 편의시설제공
- 사업홍보와 문화활동자료비치



열린공간(93m²)

- 수용인원 40명
- 소규모공연, 음악회, 연습공간
- 풍물, 난타, 드럼, 댄스 등



계단갤러리

- 개인전, 단체전
- 프로그램 및 동호회원 작품전시
- 지역주민 누구라도 전시가능한 예술공간



쉼터(발코니)



출입문



2층 출입문

in Who?

2024년 12월 Vol. 8



발행일 2024년 12월 26일

발행인 고미숙

편집인 성은숙, 고금례, 한아름, 민원영

발행처 인후생활문화센터 www.jeonjuculture.or.kr/inhoo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290 2F
TEL : 063) 247-8800

❖ 인후생활문화센터 자료집 <In Who?>는 전주시의 보조를 받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